

## Seeking Alternative Directions in Confirmation Education for Korean Protestant Church\*

Shin-Geun Jang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 Abstract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eek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confirmation education within the context of Korean Protestant Church, addressing the following issues: 1) Confusion in the use of terminology on confirmation, 2)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confirmation, and the absence or privatization of confirmation theology, 3) Formalized confirmation educ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rites of passage, and 4) The absence of denominationally structured confirmation education.

**Research content and method:**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essay attempts to foster an intradisciplinary and interactive dialogue on confirmation through a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approach. Biblically, confirmation is to be understood as the unity of the baptism of water and the baptism of Holy Spirit, associated with the consecration of the baptized as royal priests through the baptism of Holy Spirit. Historically, as a part of 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confirmation was a unified rite that has undergone a process of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Theologically, the rite of confirmation affirms the covenant of the Triune God given in baptism and is positioned between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Conclusions and Suggestions:** In conclusion, this essay suggests an alternative form of Confirmation education that is oriented towards the following objectives: 1) Education that forms the identity given in the baptismal covenant, 2) Education tha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both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3) Education that integrates the Bible, doctrine, and life of confirmand and, 4) Education based on an organic educational system.

### Key Words

confirmation education, baptismal covenant, baptism, Lord's Supper,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Received August 22, 2023   Revised September 27, 2023   Accepted September 28, 2023

Author : Shin-Geun Jang,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sgjang@puts.ac.kr](mailto:sgjang@puts.ac.k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Grant.

## 한국교회 견신례 교육의 대안적 방향에 관한 연구\*

장신근\*\*

(장로회신학대학교)

###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견신례 교육에서 나타나는 1) 용어의 혼란, 2) 견신례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견신례 신학의 부재 혹은 사사화, 3) 통과례 개념에 기초한 형식적 교육, 4) 교단 차원의 체계화된 교육 부재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교육 방향을 제안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접근을 통하여 견신례에 대한 학제 내 대화를 시도한다. 성서적으로, 견신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하나 됨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하며, 성령세례를 통하여 세례자를 왕적 제사장으로 성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견신례는 하나의 통일된 그리스도교 입문예식이었다가 분리되고 다시 일치를 모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신학적으로, 견신례는 세례에서 주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는 예식이며, 세례적 특성과 성찬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대안적 형태의 견신례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 즉, 1) 세례 언약에서 주어진 정체성을 지향하는 교육, 2) 세례와 성찬의 특성이 함께 반영된 교육, 3) 성서, 교리, 삶이 통합된 교육, 4) 체계적 교육 시스템에 기초한 교육 등이다.

### 〈 주제어 〉

견신례 교육, 세례언약, 세례, 성찬, 그리스도교 입문예식

## I. 들어가는 말

견신례는 유아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신앙을 선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인격적 신앙을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교회의 핵심적 실천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에서는 여전히 견신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계화된 교육과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삶의 현장에서 확고한 신앙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앙적 회의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단의 유혹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뒤에는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입문자 교육의 부실 혹은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여러 시대적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체계적인 입문자 교육으로서의 견신례 교육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 특히 예장 통합교단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의 견신례 교육이 직면한 여러 도전에 대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먼저, 현재 한국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견신례 교육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견신례 용어의 혼란이다(입교, 견진성사, 견진, 견진례, 세례의 갱신, 세례의 갱생, 세례의 확약, 세례언약의 갱신, 세례의 재확인, 세례의 재확증, 세례언약의 재확인, 세례신앙의 갱신 등). 둘째는, 견신례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견신례 신학의 부재 혹은 사사화이다. 셋째, 통과 의례식으로 지나가는 형식적 견신례 교육이다. 넷째로, 교단 차원의 체계화된 견신례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교육교재 등의 부재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견신례의 기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약성서에서의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관계를 검토하고, 교회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교 입문 예전의 일치-분리-일치의 현상을 고찰한다. 이에 더하여 삼위일체론적 언약신학에 기초하여 견신례의 신학적 토대를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견신례 교육의 대안적 방향을 제안한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견신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입교”도 사용한다.

## II. 신약성서에서의 견신례: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관계

견신례에 대한 성서적 논의에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신약성서에서 견신례의 직접적인 기원을 찾을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로 떼제 공동체의 부원장이며 BEM 문서의 초안을 작성했던 맥스 튀리앙(Max Thurian, 1921-1996)의 논의에 기초하여 신약성서에 나타난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관계, 그리고 성령세례와 견신례의 관계

를 알아보기로 한다.

## 1. 구분되지만 하나인 물세례와 성령세례

신약성서에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구분되지만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엡 4:5). 사도행전의 경우 세례와 관련하여 1) 죄 용서와 관련된 물세례와, 2) 성령수여와 관련된 안수(성령세례)가 나온다. 죄용서와 성령수여는 세례의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이다(Osmer, 33). 튀리앙에 의하면 물세례는 먼저 물로 정화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이를 넘어서서 “구속의 잠김”(immersion)을 뜻한다. 세례는 정화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즉 그의 고통과 피의 세례(막 10:38, 눅 12:50)를 뜻하기도 한다. 우리는 물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 그의 죽음에 동참”한다(Thurian, 31).

신약성서에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구별되어 있고 순서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서로 분리되지는 않고 전체로서 연결되어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선포한다(Thurian, 32).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예수님도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분 이라고 선포하신다(Thurian, 33).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바울도 물로 씻음을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는 구절을 통해 세례의 두 가지 요소를 구분한다. 즉, “너희가 씻음을 얻었다”는 것과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 각 각 물과 성령을 지칭하며, 또한 “너희가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물세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성령세례)’ 성취된 구원의 충만함을 포괄한다”는 것이다(Thurian, 35).

이와 같이 신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교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이다(Thurian, 36).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성령세례는 동시에 물세례를 뜻하며, 반대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베푸는 세례(행 8:26-39)는 겉으로는 단순한 물세례였으나 세례 시에 성령이 주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Thurian, 36).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구분과 연합이 나타난다. “온전한 구원은 우리의 증생의 효과적인 표지로서의 물과 자신의 은사로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주어진다”(Thurian, 37).

신약성서에는 1) 바울의 세례(행 9장), 2) 사마리아인들의 세례(행 8:14-17), 3) 에베소 사람들의 세례(행 19:5-7)와 같이 물세례와는 구별되는 안수를 통하여 성령세례를 받는 3가지 사례가 나타난다(Thurian, 40-44). 여기에서 안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성령세례와 물세

례는 그 순서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만 두 예식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구성한다(Thurian, 47).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요일 5:7-8) 라는 사도 요한의 말은 다시 한번 세례의 통일성 가운데 물과 성령이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물세례가 성령과 연계되어 하나의 증언으로 여겨지고 있다”(Thurian, 47).

이상과 같이 튀리앙은 여러 분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물세례, 우리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새로운 본성을 덧입게 하는 물세례에 병행하고 또한 연속하여 성령세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Thurian, 33). “기독교 세례는 두 가지 표지, 곧 물세례와 안수를 통한 성령세례의 결합이다.” 물세례와 안수는 “하나의 행동으로 상호보완적 요소들이다”(Thurian, 48). “이러한 물세례와 안수라는 두 표지는 후일에 세례와 견신례로 불리게 되었다”(Thurian, 48). 즉, 튀리앙은 신약성서에서 견신례라고 하는 독립된 성례를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으며,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이루어진 상호보완적인 하나의 기독교 세례만이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성령세례가 후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견신례로 분리되어나갔다는 것을 주장한다.

## 2. 인침과 기름부음으로서의 성령세례

이상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 세례는 “물과 성령의 세례”이다. 즉 “물세례”와 “성령세례”라고 하는 동일한 기독교의 두 세례, 두 계기(한 세례, 엡 4:5)는 구분되나 연합되어 있다. 그렇다면 후에 분리된 견신례의 성서적, 신학적 의미의 근거가 된 성령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물과 성령의 세례”라는 용어 외에 기독교 세례를 지칭하는 또 다른 두 가지 용어는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기름부음”이다. 튀리앙에 의하면 “세례가 가져온 거듭남의 실재와, 방언이나 예언 등의 표지를 통해 세례의 실재를 증언하고 그것의 영속적 타당성을 보호하는 성령의 인침(*signum*과 *sigillum*)”은 구분된다(Thurian, 50). “물세례가 동맹을 확립하는 조약이라면, 성령세례는 하나님의 헌신과 조약 위반을 방지하는 서명과 인장을 가리킨다”(Thurian, 50).

먼저 “성령의 인침”이란 무엇인가?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세례받을 때 임하는 성령의 은사를 구속의 날에 대비하여 신자에게 새겨지는 인침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령의 이 같은 인침은 세례언약이 끝날 때까지 유효함을 보증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것은 영속적 언약을 증명하는 표지가 될 것이다”(Thurian, 51).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의하면 선택받은 자들이 받는 인침은 “마지막 날에 신자를 보호하는 보증일 뿐 아니라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참여하게 한다는 이중적 의미에서 종말론적 표식이다”(Thurian, 52).

성령의 인침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증언하는 표지인 동시에, 구속의 날에 그들을 보호하여 증언해 줄 표지이다. 봉인이 공식적 행위의 완전함을 보증하듯이, 성령의 인침은 세례언약의 완전함을 보증하고, 그것의 영속적 타당성을 확증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고 신자들이 끝날까지 인내하도록 한다(Thurian, 52-53).

다음으로 “성령의 기름부음”은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1:21-22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라고 선포한다. 튀리앙에 의하면 여기에서 “기름부음”과 “인침”이라는 두 표지가 함께 결합되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고 그 유업을 보증한다(Thurian, 56).

“기름부음”(chrisma)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Christ)와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신약성서에서는 “사명 부여를 위한 성령의 성별”이라는 것과, 구약성서에서는 “제사장들이나 왕들의 기름부음”과 관련되어 있다(눅 4:18-19, 행 4:27, 10:38, 히 1:9) (Thurian, 56-57). 이러한 구절들은 예수님께서서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부음 받으심과 관련되어 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받으신 것을 연상케 한다(마 3:16) (Thurian, 57).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왕적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Thurian, 57).

요한복음 12:20, 27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기름부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부음은 성령의 은사의 표지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식을 주고 조명(illumination)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성령세례는 인침과 기름부음의 표지를 동반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수여하는 안수는 오늘과 구속의 날을 위한 타당한 표식, 증언, 인침으로서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까지 세례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이해된다(Thurian, 59). 성령세례는 동시에 “기름부음, 조명, 하나님 나라의 왕적 제사장직에로의 성별” 등의 특징을 지닌다(Thurian, 59).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처럼 우리는 성령세례를 통해 “믿음과 신앙고백과 왕적 제사장직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은사를 수여받는다”(Thurian, 33).

그런데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왜 구분이 되는가? 이에 대하여 튀리앙은 1)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2) 보호하고, 조명하고, 성별하는 성령의 인침과 기름 부음이라는

구속활동의 두 계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에서는 우리 주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일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례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함으로써 왕적 제사장으로 그들을 표시하고 조명하고 성별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활동하신다(Thurian, 63).

이와 같이 우리는 견신례의 직접적인 형태를 신약성서에서 발견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하나이면서 구분되는 두 가지 계기를 통하여 세례와 견신례의 일치성과 동시에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즉, 견신례의 목적은 하나의 그리스도교 입문예식 안에서 세례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함으로써 왕적 제사장으로 그들을 표시하고 조명하고 성별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견신례는 단순한 통과의례도 아니고, 단순히 교회의 정식회원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적 예전을 넘어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III. 견신례의 일치-분리-일치의 역사

견신례의 역사는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세례-견신례의 하나 됨에서 출발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분리되었다가, 최근 에큐메니컬 신학의 관점에서 다시 하나로 인식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견신례의 전체 역사를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이러한 일치-분리-일치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서술하려고 한다.

#### 1. 하나의 통일된 그리스도교 입문과정으로서의 견신례: 초기교회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성서에서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서로 구분되지만, 상호의존적이며 통일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통일성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예전을 통하여 그 통일성을 표현하였다. 특히 3-5세기 교부들의 문헌에는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교 입문 예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세례와 견신례는 분리되지 않고 <세례-안수-기름부음(도유)-첫 성찬 성례전>이라는 연속적인 입문 예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이레니우스의 제자로 3세기 교부 히폴리투스(Hippolytus, c.170-235)의 『사도전승』에 나오는 그리스도교 입문 예전으로서의 세례 예식이다. 21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 그리스도교회의 규정집 성격을 지닌 『사도전

승』은 서방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문서로 당시 로마교회의 예전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Hippolytus).

총 43장 3부로 이루어진 『사도전승』의 제1부(2-14장)는 교회의 구성과 제도, 제2부(15-21장)는 교회에 들어오려는 새 신자의 등록, 세례, 입교, 제3부(22-42장)는 신자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부는 당시에 거행된 세례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15-19장은 세례 예비과정, 20장은 세례준비, 21장은 세례 예식 등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세례예식은 <마귀와의 결별 맹세, 구마의 기름 도유, 3회의 침수(물세례), 장로의 도유, 감독의 안수와 도유, 회중과 함께 기도, 평화의 입맞춤, 첫 번째 성찬 참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Hippolytus, 1992). 이를 통하여 이 시기의 그리스도교 입문예식에서는 물세례와 주교의 안수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세례예식 안에 통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버트 브라우닝과 로이 리드(Robert Browning & Roy Reed)도 히폴리투스를 비롯하여, 터툴리안, 키프리안, 오리겐 등과 같은 교부들의 문서에서도 물세례와 도유와 성찬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그리스도교 입문예식으로 통합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Browning & Reed, 15; 조용선, 197). 이러한 교부들의 문서에서는 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주교의 도유의식 외에 견신례라고 하는 구별된 독립적 예식으로 혹은 두 번째 성례로는 존재하지 않았다”(Browning & Reed, 15).

## 2. 중세시대의 세례와 견신례 분리와 종교개혁

동방교회의 전통과는 달리 서방교회에서는 중세에 이르러 견신례가 입문예식의 맥락에서 하나의 통일된 예식이 아니라 별개의 예전 혹은 성례로 확립되어 갔는데 이러한 현상을 촉진시킨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견신례와 세례의 분리와 로마 견신례 예전의 보편화이다(Osmer, 50-53). 로마교회의 견신례 예전이 서방교회 지역에서 점차 보편화되면서 견신례에서 주교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이들에게 견신례 집례 권한이 주어졌다. 그런데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됨으로써 주교들이 모든 세례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났다. 이에 세례를 집례하는 권한은 지역의 사제에게 부여되었지만, 견신례를 집례하는 권한(세례 후 기름 부음과 안수)은 여전히 주교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아있었다. 그 결과, 세례와 견신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였다(Osmer, 50). 또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샤를마뉴 대제(748-814)는 『칙령』을 통하여 로마교회의 세례 성례전 양식을 신성로마제국의 표준으로 선포하고 오직 주교만이 견신례를 집례할 수 있게 하였다(Osmer, 52). 12세기경에 이르러 이러한 로마교회의 전통이 서방교회의 전역에서 보편화되었다.



둘째, 출생-세례 사이의 기간 단축이다(Osmer, 53-54). 그리스도교의 공인과 더불어 유아세례가 가속화되고 대중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13세기까지 로마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지역에서는 세례가 부활절과 오순절에만 거행되었다. 그러나 13세기에 오면서 세례를 연중 자유롭게 거행하게 되었고, 14세기에는 여러 공의회 결정으로 부모들이 가능하면 자녀들이 출생 후 빠른 시기에 세례를 받게 하였다(Osmer, 53). 이처럼 출생-세례 사이의 기간이 단축된 이유는 당시의 높은 유아 사망률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교리 때문이다. 원죄교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며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다. 이에 세례는 원죄의 저주를 없애고 중생의 물로 씻음 받은 자에게 불멸의 약을 제공하여 이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한다고 보았다(Osmer, 54). 출생-세례 사이의 시간 간격이 단축되면서, 출생한 유아들에게 대한 세례는 지역의 사제들이 담당하였고, 주교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셋째, 세례-견신례 사이의 기간 연장이다(Osmer, 54). 중세에 이르러 세례 성례전과 견신례가 옹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 연령”으로 연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콜로뉴 공의회(1280년)에서는 7세 이하 유아는 너무 어려서 견신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 다른 공의회에서는 분별 연령을 14세로 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견신례를 자체의 고유한 예전적 능력과 신학적 의미를 지닌 독자적 예전으로 보았음을 뜻한다. 또한 스콜라 신학의 관점에서도 유아기보다는 분별 연령이 견신례에 더욱 적합한 시기였다(Osmer, 54).

넷째, 견신례의 의미에 대한 스콜라 신학의 논쟁이다(Osmer, 54-57). 중세 초기 스콜라 신학자들 사이에 견신례의 신학적 의미에 관한 논쟁이 생겨났다. 먼저, 리츠의 파우스투스(Faustus of Rietz)는 견신례를 “세례에는 없는 무엇인가를 더하여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있어서 필수적 예전”으로 보았다. 즉, 세례 성례전은 불완전하며, 세례 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치거나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견신례는 죄와 악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고 신앙 성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Osmer, 55). 반면, 라바누스 마우루스(Rabanus Maurus)는 견신례를 세례 성례전을 통하여 이미 받은 은사를 더욱 강화시키는 예전이라고 보았다(Osmer, 55). 즉, 그는 세례는 성령을 수여하지만, 견신례는 성령의 은사를 더 부여준다고 주장하였다(Osmer, 56).

견신례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이 출현하였다. 첫 번째는, “견신례는 조건부로 필요한데 이는 성인들이 죄와 더불어 싸울 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죄의 저주로부터의 구원과 성령은 이미 세례 성례전에서 주어졌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항하여 스스로 자신을 무장하기 위하여 견신례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Osmer, 56). 후자는 견신례를 구원에 필수적

인 성례전으로 간주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견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 완수에 필요한 은혜와 시험을 이길 힘도 소유하지 못 한다고 보았다(Osmer, 56).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25-1274)는 이러한 두 입장을 잘 종합하였고, 『신학대전』에서는 견신례의 성례전적 위치를 정당화하였다. 그는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영적인 거듭남”이라면, 견신례는 “완전한 영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성숙”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자가 “죄의 저주를 끊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례전”이라면, 후자는 “성숙의 성례전”이라고 보았다(Osmer, 57). 이러한 맥락에서 아퀴나스는 견신례의 목적은 세례 성례전과 상이하며, 그 자체로 세례 성례전과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보았다(Osmer, 57).

다섯째, 견신례는 여러 공의회에서 성례전으로 공식화 되었다(Osmer, 57-58). 스콜라신학은 세례와 견신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더욱 넓히는 역할을 했다. 견신례를 성례전으로 간주하는 신학과 실천은 견신례가 공인된 1439년 플로렌스 공의회에서 그 절정에 달했다(Osmer, 57). 견신례는 이제 7성례전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다. 견신례의 목적은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아 힘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다(Osmer, 57) 이 성례전은 보통 주교만이 집행할 수 있었으며 세례 성례전 및 서품과 더불어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므로 반복 불가능한 것으로 선포되었다. 즉 견신례는 “주교의 예식 행위를 통해 성령을 전달하며 영혼에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새김으로써 반복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Osmer, 58). 이와 같이 중세교회의 신학과 실천에 의하면 견신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강화시키는 은총을 주는 성례”였다.

견신례를 성례로 보는 중세 서방교회의 이러한 이해는 교리교육에 강조점을 두는 종교개혁자들의 견신례 이해와 대조된다. 종교개혁자들은 견신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중세의 견신례가 주교권의 강화와 세례의 축소를 가져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사실상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 지식의 부족으로 견신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터는 견신례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지 않은 반면, 교리문답교육(catechetical instruction)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내고, 이를 위한 신학적 기초를 제시하고 체계화하여 그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그는 교리문답교육이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Osmer, 67), 어린이나 성인들이 교리문답교육을 통하여 성찬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운 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루터에게 교리문답교육은 평신도들이 만인(보편)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잘 수행하도록 무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다(Osmer,

70).

루터는 견신례를 “교회가 제정한 일종의 축복 예식”으로, 또는 견신례가 세례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보면서 “물로 베푸는 축도와 같은 교회 의식, 예전”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Thurian, 17-18). 또한 견신례에 대한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례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중세적 견신례 이해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세례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재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이다(Osmer, 70).

그러나 루터는 교회가 세례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리문답교육을 수행해야 하며, 분별 연령이 되면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서약하고 교회의 교리와 관습에 충성을 다짐하는 견신례 예식에 대해서는 찬성하였다(Osmer, 71). 이처럼 루터는 견신례의 역할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으며, 성례전을 개혁하고 교리문답교육을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멜랑히톤과 칼뱅도 견신례를 “세례 후보자들에 대한 교리문답”의 관점에서 이해했다(Thurian, 17-18). 칼뱅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여 견신례의 성례전적 성격을 부인하였다. 그는 견신례를 “아이들이나 아동기를 지난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의 한 형태”로 이해하였다(Thurian, 18). 그는 견신례를 세례의 모방 혹은 완성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했으며, 동시에 성령의 전달을 위해 주교가 안수하는 행위도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사도시대 이후 기적, 신유, 안수를 통한 성령 전달은 더 이상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Thurian, 24). 즉, “안수를 통해 주어진 성령의 가시적 활동”은 사도 시대에 국한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도구였다는 것이다(Thurian, 25).

종교개혁자들은 비록 당시의 기독교 입문예식의 형태를 가져왔지만, 견신례의 성례전적 성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견신례가 세례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례 자체의 완전성/온전성이 약화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의 견신례 실천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당시) 견신례라는 이름 아래 모호한 의미를 갖고 있던 예식, 즉 세례 성례전과 분리되어 이것에 보충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예식을 반대하였다”(Thurian, 19-20).

그런데 마틴 부처(Martin Bucer)는 종교개혁자 가운데 견신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어린 시절 “세례”를 받은 사람은 후에 교역자들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교리문답 교육”을 받고 기독교 공동체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후에 “견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견신례는 “공동체 전체의 기도,” “안수”(주님의 본에 따라서, 막 10:16), “성찬 성례전” 등으로 이루어진다(Thurian, 21-22). 견신례를 받은 사람은 신앙과 기독교의 행위 가운데 머물게 된다. 이 처럼 부처는 칼뱅처럼 세례, 교리문답, 신앙고백을 견신례의 3가지 핵심 요소를 보았지만, 이에 더하여

교회의 기도, 안수, 성찬 성례전 등을 객관적 요소로 추가하였다(Thurian, 22).

### 3. 새로운 일치를 위한 오늘의 에큐메니컬 관점

20세기에 들어와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WCC의 예배와 직제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예배와 성례전에 대한 에큐메니컬 이해와 실천은 견신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브라우닝과 리드는 최근 로마 가톨릭, 성공회,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연합감리교회, 미국장로교회(PCUSA), 그리스도연합교회, 캐나다연합교회 등과 같은 북미 7개 교단에서 실행되고 있는 견신례의 경향(trend)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통하여 우리는 견신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에큐메니컬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Browning and Reed, 77-108). 여기에서는 브라우닝과 리드가 제시한 항목들을 3가지 범주로 묶어서 서술하였다.

첫째, 초대교회의 통합 입문예식의 맥락에서 견신례의 회복이다. 초대교회의 “세례-안수-도유-성찬으로 이루어진 소위 “통합 입문예식”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가톨릭의 RCIA(어른입교미사, 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는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RCIA는 초대 교회 입문예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이에 기초하여 전체 과정을 1) 전 예비 기간: 예비자로 받아들이는 예식, 2) 예비자 기간: 선발예식, 3) 정화와 조명의 시기: 성사 거행 (사순절), 4) 신비교육: 부활 시기 등으로 구성하였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위원회 편, 손원영).

둘째, 견신례에 대한 이해의 변화이다. 여기에는 먼저, 견신례를 청소년기의 신앙고백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과 “반복 가능한 경험으로서 세례의 갱신, 견신례, 혹은 세례 확증”으로서의 견신례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인생의 여러 결정적(kairos) 순간에 세례언약을 재확인하는 반복 가능한 예전으로, 혹은 하나님 백성의 제사장적 역할을 성별하는 반복 가능한 예전으로도 인식되고 있다(Thurian, 김현애, 2014).

이와 더불어 견신례에 대한 “실체론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해”도 “현상학적/관계론적이고 공동체적인 이해”로 변화되고 있으며, 견신례를 받을 때까지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성찬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개인이 그리스도교 가족공동체에 접목되는(engrafting) 시점은 견신례가 아닌 세례라는 확신이 강화되고 있다. 견신례의 성례전성(sacramentality)과 그 의미에 관한 질문들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견신례 교육의 변화이다. 시기적으로 청소년기 초반보다는 주체적 신앙고백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기 후반이나 청년기 초반에 견신례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견신례 교육에서 실천적 섬김(봉사활동)과 성인 멘토링의 방법과 평신도 역할의 증

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교회학교와 가정의 신앙교육과 견신례 교육 사이의 구별, 풍부하고 다양한 견신례 교육자료에 대한 요구, 특히 유아세례의 중요성과 부모와 회중을 준비시키는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IV. 삼위일체론적 언약신학에 기초한 견신례 신학

견신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근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신학적 이해가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리차드 오스머(Richard Osmer)가 칼뱅과 바르트의 신학에 기초하여 삼위일체론적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제안한 견신례 신학을 살펴본다. 그의 견신례 신학의 핵심은 견신례가 기본적으로 세례의 완전성에 기초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례적 요소와 성찬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두 성례전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 1. 견신례의 세례적 특성

견신례는 시간적으로 볼 때 반복 불가능한 일회적 예전이라는 차원에서 세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Migliore, 466-67). 견신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유일하고 반복 불가능한 순간이며, 견신례 지원자는 교회와 세상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 선언과 순종 서약을 하고 세례 언약에서의 서약을 자기 의식적으로 확증한다”(Osmer, 175).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견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되어있는 존재가 되기로(choosing to become who you already are) 결단”하며, 세례에서 부여된 이러한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서약을 확증하는 예전이다. 또한 견신례는 다음과 같은 세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1) 예정, 2) 화해, 3)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효과적 표지”로서 “언약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며 은혜의 언약의 표지를 구체적인 개인적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Osmer, 177, 175).

첫째, 성부 하나님의 예정 사역은 칼뱅의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론과는 다르게, 바르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선택)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삶으로 가져오는 것은 개인”이다(Osmer, 179). 이것은 원칙적(de jure) 예정에서 사실상의(de facto) 예정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견신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예정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교회 앞에서 이미 예정된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교회의 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다”(Osmer, 180).

둘째, 성자 하나님의 화해 사역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기로 결정한 예정 사역이 역사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다(Osmer, 180).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화해는 칭의와 성화를 동반한다. 먼저 칭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초대할 향한 인간의 반항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이 심판이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내려졌음을 뜻한다(Osmer, 181). 견신레도 이와 같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죄와 공모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초대한다 … 견신레에는 개인이 악의 힘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Osmer, 181).

셋째, 성령 하나님의 성화 사역은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인한 인간의 고양(exaltation)을 뜻한다(Osmer, 182). 그리스도의 성화 사역은 개인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성화가 이루어질 때에만 바르게 인식되고 전유된다(Osmer, 182). 성화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언약적 사랑의 가능성으로 돌아서는 것”을 뜻한다(Osmer, 183). 견신레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언약적 사랑의 가능성으로서 돌아섬”이라는 의미의 성화를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구체적으로 따라가야 한다. 과거의 삶의 방식과 단절하고 언약적 사랑의 길에 들어서기 위한 구체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Osmer, 183). 견신레는 참여자들을 해방과 자유의 언약적 사랑의 길로 초대한다(Osmer, 183).

넷째,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는 구속 사역,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세상의 변혁,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현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미래를 뜻한다”(Osmer, 183). 성령은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사람들을 조명하거나 가르치고(요 15:26) 새 창조의 찬양과 증언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한다. 성령은 계시의 주관적 차원과 관계되어 있으며, 개인이 그리스도의 칭의와 성화 사역을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화 사역을 순종 가운데 받아들이게 한다(Osmer, 184). 성령의 일차적 사역은 구속 사역, 즉 새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의 한 부분이다. 성령은 장차 완성될 우주적 갱신의 첫 보증(first installment)이다. 화해는 이미 일어났으나 구속과 영화는 장차 성취된다(Osmer, 184). 견신레는 따라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삶의 순간을 가리킨다(Osmer, 184). 견신레는 이미 성령을 따라서 구속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도달하지 못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그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단하는 지점을 뜻한다(Osmer, 185).

소망을 창조하는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는 완전한 구속을 향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세례이다. 여기에서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Osmer, 185). 견신레는 세례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의 낙관주의와는 구

별되는 이러한 소망을 수용하고 확증하는 순간을 가리킨다(Osmer, 186). 견신례는 이들이 삶의 비극을 직면하게 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스도교적 소망은 흑암 속의 빛, 절망 속의 확신, 억압 속의 투쟁, 불가능한 확률 속에서의 기대이다”(Osmer, 186).

구속의 비유를 창조하는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는 세례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분별하고 거기에 참여하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자는 “이미 그 속에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운동과 투쟁에 스스로를 연결시키는 과제를 부여받는다”(Osmer, 187).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이것이 성령의 구속 활동이 이루어지는 유일하고 우선적인 장소는 아니다. 국가, 정치운동, 문화 운동 등 성령의 활동 장소는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며, 이것은 미래 구속의 범주가 우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Osmer, 187).

견신례에서는 대상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간주되는 교회 밖의 구체적 활동, 운동, 또는 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해야 하며, 이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가운데 교회와 세상, 성령과 인간의 영, 하나님의 구속과 인간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Osmer, 187). 따라서 견신례는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제한시키는 근대성의 경향에 대한 하나의 저항 지점(a point of resistance)이 된다(Osmer, 187). 이러한 점에서 견신례는 인격적인 차원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적 신앙 양육을 위한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

## 2. 견신례의 성찬적 특성

몰트만에 의하면 “세례가 단번에 유효한 종말론적인 출발의 표징이듯이, 주의 식탁에서 경험하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친교는 종말론적인 길의 표징이다. 우리가 세례를 일회적인 은혜의 표징이라고 부른다면, 주의 만찬은 반복할 수 있는 희망의 표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세례와 주의 만찬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메시아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다”(Moltmann, 360).

오스머에 의하면 견신례는 세례적 특성과 동시에 성찬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세례와 성찬은 사실상 동일한 신학적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양자 모두 예수님의 죽음이 지닌 구속적 의미와 다가오는 구속을 기대하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Osmer, 188). 성찬 역시 은혜의 언약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화해시키시고 구속하시는 활동에 대해 증언한다(Osmer, 188) 그러나 견신례는 시간적 속성에서 볼 때 유일회적이며 반복 불가능한 세례와는 달리 “순환적이며 반복 가능한 예전”이다. 이것은 개인이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번 참여하게 되는 개인적, 공동체적 언약 갱신을 가리키는 표시이다

(Osmer, 188). 성찬 성례전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언약의 연대(bonds)를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의 예식이다”(Osmer, 175).

견신례는 이러한 성찬의 속성을 이어받아 “개인이 평생 계속되는 순례의 도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갱신의 많은 순간 중의 하나”이다(Osmer, 188).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순종을 위한 지속적인 언약의 갱신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역동적 언약 관계가 화석화된 제도로 변질되기 쉬운 경향 때문이다(Osmer, 188).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과거의 유일회적 사건에 기초하여 이미 고정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것과 공동체가 순종 가운데 응답하는 것의 문제이다(Osmer, 188). 따라서 견신례는 성찬의 이러한 의미를 이어받아 세례와의 긴장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언약 공동체에 들어서는 것은 도상에 있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수반하며, 이것은 주어지는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해서 응답함을 뜻한다”(Osmer, 189).

### 3. 견신례에서 하나님의 선행성과 인간행위

세례와 성찬은 모두 은혜의 언약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행성과 우선성을 증언한다(Osmer, 189). 즉, 양자의 신학적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되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어린이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선물을 누리고 있다. 견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교회의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의 경험 안에서 이미 확립된 실재를 수용하고 붙잡는 것을 나타낸다(Osmer, 189). 이런 의미에서 교리교육을 첫 성찬 앞에 두었던 종교개혁의 전통(유아세례-교리문답 교육-첫 성찬 허락)과는 다르게, 성찬은 견신례보다 앞에 두어야 한다(유아세례-첫 성찬-교리교육-견신례).

그러나 동시에 견신례에서는 인간 행위자가 강조된다. “견신례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이다(Osmer, 189). 견신례 지원자의 선언과 서약은 말씀에 응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인간의 행위이다. 견신례 대상자와 하나님의 언약관계는 역동적 관계이다. 한 번의 선언을 근거로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안전하게 확립된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반복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관계”이다(Osmer, 190).

결론적으로, 오스머는 따라서 견신례는 세례적 요소와 성찬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두 성례전 사이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견신례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을 표시하는 동시에 회개와 회심의 지속적인 과정에 참여함을 표시한다”(Osmer, 187). 개혁교회의



복음적 예식으로서의 견신례는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이 긴장을 이루어야 하며, 어느 하나가 상실되어서는 안된다. 전자가 상실되면 견신례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전락하며, 후자를 상실하면 재세례파 전통에 가까워진다(Osmer, 187).

## V. 견신례 교육의 대안적 방향 모색

서론에서 제시한 오늘의 견신례 교육의 도전들과 견신례의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이해를 고려할 때 오늘의 대안적 견신례 교육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 1. 세례 언약에서 주어진 정체성을 지향하는 교육: 목적과 목표

오늘 한국교회의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견신례 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견신례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고 이에 기초한 견신례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적 견신례 교육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상황에서 견신례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견신례에 대한 여러 논의를 고려하면서 먼저 대안적 견신례 교육의 목적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견신례 교육은 지원자들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례 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서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이미 되어있는 존재”라는 정체성에 따라서 교회와 세상에서 제자와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이들의 헌신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기초한 견신례 교육의 목표는 1) 교회의 신앙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하며, 2)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인격적 차원의 신앙을 선언하며, 3) 세례 시의 은혜의 언약을 인준하며, 4) 교회의 정식회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며, 5) 세상에서 제자-시민으로서의 소명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의 대안적 견신례 교육은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신앙의 개인주의화와 사사화의 틈에서 벗어나서, 보다 온전한 신앙형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지원자들이, 몰트만의 표현을 빌자면, “기도와 땅에 대한 충실성,” “묵상과 정치적 투쟁,” “초월적 경건과 연대적인 경건” 사이의, 즉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의 창조적 긴장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Moltmann, 414-22).

## 2. 세례와 성찬의 특성이 함께 반영된 교육

먼저 세례적 특성을 반영한 견신례 교육은 지원자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견신례가 유일하고 반복 불가능한 순간이며, 교회와 세상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 선언과 순종 서약을 하고 세례 언약의 서약을 “자기 의식적으로 확증하는 일회적 예전”으로 인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뜻한다. 이러한 경우, 견신례 대상자는 주로 유아세례를 받은 청소년이나, 유아세례를 받았으나 청소년기에 견신례에 참여하지 못한 신생 성인기의 청년(주로 대학생 시기)과 사회 초년생 (30대 초반)과 같은 사람들이다.

청소년과 신생 성인기 청년의 경우 자아 정체성의 중요한 형성기임을 고려하여 견신례 교육이 형식적인 통과 의례가 되지 않고, 자원하여 스스로 결단하는 가운데 유아세례 언약에서 부여된 정체성을 확증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앙고백 시 스스로 자원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현재 예장 통합의 경우 견신례(입교) 연령이 13세(중1)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시기를 가능한 청소년 전기보다 중기(15-16세, 중3-고1)나 후기(17-18세, 고2-3)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상황에서 대학입시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 중기가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입교하지 못한 신생 성인기 청년의 경우 새로운 출발을 하는 대학 신입생 시기가 적절할 것이다.

사회 초년생(30대 초반)의 경우 이들이 직면한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싱글사역, 결혼 상담사역, 젊은 부부 사역 등에서 견신례 교육이 가능하다(Osmer, 198). 따라서, 유아세례를 받은 청소년과 신생 성인기 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이 지원자일 경우, 이들이 일회적 예전인 견신례에서 세례 언약의 서약을 자기 의식적으로 확증하고 결단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이나 신생 성인기 청년, 사회 초년생 모두 견신례가 삶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도록, 신앙의 실존적 차원을 강조하며, 또한 교회의 정식회원이 되도록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성찬적 특성을 반영한 견신례 교육은 지원자들이 견신례를 순환적이며 반복 가능한 예식으로 인식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여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적, 공동체적 언약갱신에 참여하도록, 또한 지속적인 회개와 회심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뜻한다. 성찬적 특성을 지닌 견신례는 삶 속에서의 “각성(awakening), 갱신(renewal), 혹은 헌신(commitment)을 위한 특별한 기회들”(PCUSA), “삶의 여러 카이로스,” 혹은 “평생 동안 자기 이해가 성숙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의 변화가 왔을 때” 이에 상응하여 반복될 수 있고, 또한 반복되어야 하는 성례이다(Browning & Reed, 136-37). 이러한 성찬적 특성을 반영한 견신례 교육은 새신자 등록, 취업, 군입대, 결혼, 은퇴, 이민, 선교지 파송, 가족의 죽음 등과 같은 특별한 순간들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거행되는 세례, 성찬, 견신례 등에 공동체의 증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세례 교인들의 세례 언약 재확인도 견신례의 성찬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들을 위한 견신례 교육은 해당 예전 안에서, 설교를 통하여, 혹은 별도의 교육기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세례 성례전이나 성찬 성례전에서 세례언약 재확인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여 회중 모두가 정기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설교 시간에도 세례의 핵심인 삼위 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기초한 예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성인 성경공부에서도 세례, 성찬, 견신례 등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심도 있는 공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3. 성서, 교리, 삶이 통합된 교육

대안적 견신례 교육은 앞에서 제시된 교육 목적과 목표에 기초하여 성서, 교리/신학, 삶이 통합된 교육을 지향한다. 즉, 지원자의 삶의 상황에 대한 관심 없이 교리문답 문항을 먼저 인지적으로만 가르치고 성서는 교리에 대한 증명 텍스트(proof text)로 간주하는 전통적 방법에서 이들 사이의 상호연계성을 지향하는 견신례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먼저 성서교육은 교리교육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성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청소년기 이전에는 성서의 단편적 이야기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견신례 지원자를 위한 성서교육에서는 이를 넘어서서 성서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것을 교리적,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성서의 이야기가 지닌 의미를 더욱 깊이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장신근, 183-85).

특히, 청소년과 신생성인기 청년들을 위한 견신례 교육은 “선언(profession)”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원자들이 등록에서부터 타의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견신례 교육을 선택하도록 하고, 교리공부와 성경공부를 통하여 개인적 신앙 선언과 순종 서약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과거에 배운 성경 내용과 교리/신학 내용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여 교회의 신앙을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서교육과 교리 교육은 지원자의 삶의 현장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실존적, 공동체적, 공적, 글로벌 이슈들에 대하여 성서적, 신학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신생성인기 청년들을 위한 성서교육과 교리/신학 교육에서는 이들이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차원에서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북미의 견신례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지원자들이 견신례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 교육 주제 가운데 1위는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신학(성부, 성자, 성령)이라

는 점을 잘 참고해야 할 것이다(Dean & Douglass, 7).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교육과 교리/신학교육이 인지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원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영성을 형성해 나가며, 동시에 교회 내의 다양한 관계와 사회에서의 섬김과 변화의 현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실천적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견신례 교육 기간에 지역사회와 다양한 섬김과 나눔의 현장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자들이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견신례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성서, 교리, 삶이 통합된 교육을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견신례 교육의 전 과정에 교사, 멘토, 대화 상대자, 기도 후원자, 봉사자 등으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체계적 교육 시스템에 기초한 교육

대안적 견신례 교육은 1. 신청 및 선발 단계, 2. 교육 단계, 3. 예식 단계, 4. 후속 교육 단계와 같은 4단계로 이루어진 교육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교육은 오프라인에서의 면대면의 인격적 관계와 더불어, 디지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온라인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신청 및 선발 단계: 대상자들이 부모나 교사의 강요, 통과 의례, 혹은 단순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스스로가 결단하고 자원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자를 선발하는 단계이다.
  - 1) 입교 신청을 위한 홍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인 예배, 청소년부, 청년부, 구역 모임 등을 통하여 견신례의 중요성, 대상 연령, 과정 등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 2) 입교 후보로 신청: 담임목사, 부서 담당 교역자, 교구 담당 교역자들이 후보자들을 개별로 면담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참여할 수 있게 격려한다.
  - 3) 선발예식: 주일 성인예배 혹은 오후 예배에서 선발된 입교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목회자는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예식으로, 지원자들은 전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부모, 교사, 봉사자, 회중들은 이들의 교육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 같이 서약한다. 지원자들은 구두 서약과 동시에 서약서에 서명을 한다.

2. 교육 단계: 선발된 지원자들에게 성서, 교리, 삶의 통합을 지향하는 성서, 교리와 신

학, 교단 헌법(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등에 대한 교육, 개별적 멘토링, 현장 실천 등을 실행한다. 교육 단계에서 유의할 사항은 입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지원자들이 소속된 각 교회학교 부서에서의 교육과정과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며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1) 성서교육: 단편적인 성서 이야기를 성서의 전체 이야기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전유하고 이에 기초하여 스스로 주체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성서의 이야기들을 게르트 타이센(Gert Theissen)이 제시한 “성서적 신앙의 근본 모티브들(창조, 지혜, 기적, 소외, 희망, 회개, 엑소더스, 대속, 거주, 신앙, 아가페, 입장바꾸기, 심판, 칭의)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전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해하고 삶으로 연결하도록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Theissen).
- 2) 교리/신학교육: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앙고백(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제네바 교리문답서,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등)과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예를 들어, 예장 통합의 “21세기 신앙고백서”) 등에 기초하여 주요한 신학 주제(삼위일체 하나님, 인간, 교회, 구원, 종말 등)들을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비판적,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신앙고백서(요리문답서)의 개념, 용어, 표현 등을 지원자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쉽게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서교육과 더불어 교리/신학교육은 지원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선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3) 교단 헌법교육: 지원자들에게 지역교회가 속한 교단의 역사, 신학적 입장, 정치원리, 거버넌스, 교인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이들이 제직회와 당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단기 선교여행 등과 같은 교회의 섬김과 선교 현장에서 실천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4) 멘토링: 견신례 지원자 부모, 목회자, 선발된 평신도 등이 지원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멘토링을 실시한다. 멘토링은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들 혹은 지원자들의 신앙, 삶, 학업, 일 등과 연관된 생성적 주제들에 대한 대화와 상담으로 이루진다.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지원자가 입교교육 기간 동안 “영적독서”(Lectio Divina)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영적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영적 습관 형성은 전달식 강의로는 쉽지 않으므로 목회자, 교사, 특히 멘토가

개인적인 동반자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지원자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멘토링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5) 교육기간: 독일이나 미국교회의 경우 청소년 견신례교육의 기간이 보통 1년 정도이지만, 한국교회의 경우 6개월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교회 현장의 상황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이 요청된다. 부활주일 한 주전 토요일에는 수료자들을 위한 수련회와 당회의 심사를,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입교식을 거행한다.

3. 예식 단계: 입교 교육과정을 정리하는 수련회와 당회의 심사를 거쳐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언약을 확증하는 예식을 부활절 주일예배 시 거행한다.

- 1) 수련회와 당회의 심사: 지원자들은 견신례 예식 일주일 전 토요일에 수련회를 통하여 견신례에서 배운 내용을 성찰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신앙고백서를 개인적으로 작성한다. 수련회는 입교를 위한 당회의 심사와 함께 마무리 한다.
- 2) 주일 입교 예식: 예식순서는 교단의 예식서를 참고하거나, 지역교회의 현실에 맞추어서 작성한다. 설교자는 교육과정을 잘 마친 지원자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한 교사, 부모, 멘토, 봉사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이제 지원자들이 정식회원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며, 세상에서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파송하는 말씀을 전한다. 예식 가운데 지원자들은 수련회에서 직접 작성한 신앙고백서를 낭독하면서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주체적인 신앙고백을 한다. 또한 부모, 목회자, 교사, 멘토들은 함께 지원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적 지원을 계속할 것을 결단하는 순서도 포함한다. 지원자들의 고백과 더불어 전체 회중이 자신의 세례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 3) 입교 후 첫 성찬 참여: 입교자들이 다른 회중들 보다 먼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가능하면 성찬상 앞으로 나와서 떡과 잔을 받도록 한다. (예장 통합의 경우, 세례교인(입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이 있다.)
- 4) 축하예식: 입교를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념품과 꽃다발 등을 준비하여 전달한다. 입교예식의 순간을 계속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잘 기록하여 선물한다. 입교과정에 함께 참여한 부모, 목회자, 멘토, 봉사자들과 또한 가족, 친척, 친구, 회중들과 함께 하는 축하의 파티를 준비한다.

4. 후속 교육 단계: 입교교육과 이후의 신앙교육이 잘 연계 되도록 지원한다.

- 1) 정기적 성찬 참여: 입교자들이 주일 성인예배, 세대통합 예배, 혹은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 시 정기적으로 성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세례 언약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도록 한다.

- 2) 교회학교 교육과의 연계: 입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들과 각 부서에서의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게 노력한다.
- 3) 멘토와의 지속적 관계: 교육과정에 함께한, 혹은 새로운 멘토(목회자, 평신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주어 새로운 입교자들의 신앙 성숙의 여정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한다.
- 4) 정기적 재확인: 입교 10주년, 20주년, 30주년 등을 맞이할 때 후배 입교자들의 입교예식에 참여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자신들의 세례 언약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견신례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견신례 교육의 대안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전체적인 방향만을 제안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견신례는 세례에 비하여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거나 무관심 속에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예전으로 취급되어온 경향이 크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견신례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또한 세례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다원주의적 문화, 가치, 사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언약에 기초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세상에서 제사장적 소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견신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내용들이 한국교회의 견신례를 회복시키고 갱신해 나가는 노력에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 김홍연 (2007). **세례·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쿰란출판사.  
 [Kim, H. Y. (2007).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for baptism and confirmation*. Seoul: Qumran Press.]
- 김현애 편저 (2015). 『견신례/세례언약 재확인 예식』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Kim, H. A. Ed. (2015). *Confirmation/rite of reaffirmation of the baptismal covenant*. Seoul: WPA.]
- 김현애 (2014). 견신례/세례언약 재확인 예식의 이해. **신학과 실천**, 38, 121-43.  
 [Kim, H. A. (2014) A study on confirmation or reaffirmation of the baptismal covenant. *Theology and Practice*. 38. 121-43.]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헌법**. 2023. 7. 20. <http://new.pck.or.kr/law.php?stx> 에서 인출.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Constitution*. Retrieved July 20, 2023. from <http://new.pck.or.kr/law.php?stx>]
- 손원영 (2009). RCIA의 영성형성 모델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24, 179-205.  
 [Sohn, W. Y. (2009). A study on a spiritual formation model of 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RCIA). *Journal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4. 179-205.]
- 임영택 · 양승준 (2015). 현대 개신교 교회의 입교 회복을 위한 연구: 입교예식과 교육의 역사적 전통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47, 141-70.
- [Lim, Y. T. & Yang, S. J. (2015). A study on contemporary confirmation renewal through Church's historical initiation. *Journal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7, 141-70.]
- 장신근 (2021). 통전적 신앙형성을 위한 교리교육의 재개념화. **기독교교육논총**, 68, 175-216.
- [Jang, S. G. (2021). Reconceptualization of catechesis for forming holistic Fait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68, 175-216]
- 정두성 (2016). **교리교육의 역사**. 서울: 세움북스.  
 [Jung, D. S. (2016). *A history of catechism*. Seoul: Seumbooks.]
- 조기연 (2012). **기독교세례예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Cho, K. Y. (2012). *Christian initi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조용선 (2006). 입교교육 비교. **기독교교육논총**, 12, 1-19.  
 [Cho, Y. S. (2006). Konfirmandenarbeit im Vergleic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12, 1-19.]
- 최승근 (2014). 입교(Confirmation)의 신학적, 목회적 의미와 그에 따른 실천적 제안. **복음과 실천신학**, 32, 175-213.
- [Choi, S. G. (2014). Confirmation: Theological and pastoral meanings and implications. *The Gospel and Praxis*, 32, 1-19.]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전례위원회 편 (2018). **어른입교예식**.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ed. (2018) *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 Browning, R. & R. Reed. (1995). *Models of confirmation and baptismal affirmation: Liturgical and educational issues and designs*.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 Dean, K. & K. Douglass (2018). Introduction. Osmer, R. & Douglass, K. (Eds.). *Cultivating teen faith: Insights from the confirmation project*.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1-19.
- Groome, T. (2003). *Total Catechesis/Religious education: A vision for new and always*. Groome. T.



- Horizons and hopes: The future of religious education.* Mahwah, NJ: Paulist Press, 1-29.
- Hippolytus, R. (1992). **사도전승: 히블리투스**. 이형우 역. 서울: 분도출판사. (원저 1959 출판).
- [Hippolytus, R. (1992). *La tradition apostolique*. Translator: Lee, H. W. Seoul: Bundobook.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59)]
- Jane, M. & Norton, P. (2015). **CREDO: 감리교 청소년 입교 매뉴얼**. 양승준 역. 서울: 열린출판사. (원저 2010 출판).
- [Jane, M. & Norton, P. (2015). *Credo*. Translator: Yang, S. J. Seoul: Openbook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0)]
- Migliore, D. (2012). **기독교조직신학개론(전면개정판)**. 신옥수, 백충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원저 2012 출판)
- [Migliore, D. (2012).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Translators: Shin, O. S. & Bak C. H. Seoul: Holywaveplu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01)]
- Osmer, R. (1996). *Confirmation: Presbyterian practices in ecumenical perspective*. Louisville, KY: Geneva Press.
- Osmer, R. & K. Douglass (2018). "Ch. 7: The confirmation project as practical theology." Osmer, R. & K. Douglass (Eds.). *Cultivating teen faith: Insights from the confirmation project*.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145-78.
- PCUSA. (2019). **미국장로교 헌법: 2부 규례서 2019-2023**. 2023. 07. 20.  
[https://www.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2019-23\\_korean\\_boo-electronic.pdf](https://www.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2019-23_korean_boo-electronic.pdf) 에서 인출.
- [PCUSA (2019).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I: Korean book of order*. Retrived July 20. 2023. from  
[https://www.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2019-23\\_korean\\_boo-electronic.pdf](https://www.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2019-23_korean_boo-electronic.pdf)]
- Schweitzer, F., & Ilg, W. (2010). *Confirmation work in Europe: Empirical results, experiences and challenges: A comparative study in seven countrie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 Theissen, G. (2010). **성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원석, 손성현 역. 서울: 동연 (원저 2003 출판).
- [Theissen, G. (2010). *Zur Bibel Motivieren: Aufgaben, Inhalte und Methoden einer offenen Bibeldidakt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03)]
- Thurian, M. (2014). **평신도의 제사장적 역할: 견신례의 새로운 성례전 접근**. 김태형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원저 1963 출판).
- [Thurian, M. (1963). *Consecration of the layman: New approaches to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Translator: Kim, H. A. Seoul: WPA.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63)]